

실패접근 동인의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차재호·안미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車載浩(1983)의 동기의 4요소설에 따라 성취동기 중 아직 확인된 바 없는 실패접근의 동기요소를 재는 척도를 만들었다. 척도의 교차 확인신뢰도(cross-validated reliability)인 Cronbach $\alpha = .78$ 내지 .79정도였으며, 실패접근은 성취동기 요소들 중에서 성공접근과 실패회피 요소들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임을 보여주었다. 예상대로 실패접근 동기는 성적 및 지능지수와는 대체적으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문제학생과 과소성취자로 분류된 학생들의 실패접근 점수가 일반 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 비행청소년 집단의 실패접근 점수가 일반 학생의 것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자료는 높은 실패접근 경향이 높은 공격성 및 충동성과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본 연구로 시사되는 점들과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본 논문은 실패접근 동인(動因)의 측정을 위한 검사 개발에 관한 보고이다. 車載浩(1988)는 인간의 동인을 행위양가성(예: 접근 대 회피)과 결과 불확실성(예: 성공 대 실패)이란 두 차원의 조합에 입각하여 4개의 요소동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행동의 양가성이란 모든 행동이 이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성공이나 실패의 행동은 성공 자체를 장점으로 보고 실패 자체를 단점으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떠나 각기가 장점과 단점을 다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성공을 할 때 오는 자기 만족감이 있는 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된 일을 해야 한다. 실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므로 괴로운 반면 다른 사람이 거는 기대감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이점도 지닌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이건 그 행동이 갖는 양면적인 유인가에 따라서 그 행동에 접근할 수도, 그 행동을 회피 할 수도 있다. 결과 불확실성이란 모든 행동의 결과가 배타적인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어느

쪽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기대를 할 수 없음을 말한다. 성취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성공으로 끝날 것인지 실패로 끝날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며 친애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의 결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인지 거부를 당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람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 그 장면에 접근하지만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을 내다 보면 그 장면을 회피하게 된다.

이와 같이하여 모든 사회적 동인은 두개의 배타적인 행동 결과와 각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갖고 있는 접근요인(정적유인)과 회피요인(부적유인)으로 교차된 4개의 요소 동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동기 이론을 성취동기에 적용하면 4요소는 성공접근, 성공회피, 실패접근 및 실패회피가 된다. 이들 4개 요소 중 3개 즉, 성공접근, 성공회피, 그리고 실패회피는 이미 연구자들에 의해 개념화되고 측정된 바 있다(성공접근: Atkinson, 1957; McClelland, Atkinson,

Clark, & Lowell, 1953. 성공회피 : Horner, 1968. 실패회피 : Atkinson, 1957). 오직 개인에서의 실패 접근 경향을 재려는 시도가 아직 없었을 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인 4요소설에서 예언되는 실패접근 동인의 측정 도구의 개발에 관해 보고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실패접근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선정과정, (2)동 척도의 신뢰도, 및 (3)동 척도의 구인 타당도 (construct validity) 각각에 관해서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실패접근 척도의 제작

예비 문항의 구성

예비 문항은 실패접근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54개 문항들은 4가지 유형으로서 첫째 유형인 순수하게 실패접근만을 진술한 문항들은 24개로써 실패에 가치를 두며, 실패를 지향하는 행동이나 습관 또는 경향성을 표현한 능동적 실패지향 문항들과 자포자기나 자기학대적인 측면에서 실패에 접근하는 피동적 실패지향을 나타내는 문항들이었다(능동적 문항의 예 : “나는 실패할 것이 뻔한 일이라도 덤벼들어 한다”. 피동적 문항의 예 : “나는 시험에 계속 나체 점수를 받지만 더 이상 올려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나머지 문항들은 실패접근 동기를 다른 동기들과 대치시켰다. 구체적으로는, 두번째 유형인 실패접근과 성공접근을 한 진술문내에 대치시킨 문항들(예 : “나는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 못지 않게 기뻐할 수 있다.”)은 14개 였으며, 세번째 유형인 실패접근과 성공회피를 한 진술문 내에 대치시킨 문항들(예 : “나는 성공을 해서 부담감을 안고 살기 보다는 차라리 실패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은 7개, 그리고 네번째 유형인 실패접근과 실패회피를 한 진술문내에 대치시킨 문항들(예 :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보다도 실패해도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은 9개였다.

실험용 검사의 제작

예비검사의 문항분석을 위하여 실험용 검사를 제작했는데 이 검사는 상기한 54개 문항에 성공접근, 성공회피, 그리고 실패회피 각각을 재는 문항 2개씩을 보탠

것으로 모두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 및 실험용 검사의 실시

60개 문항으로 된 실험용 검사의 문항 분석을 위한 자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수집 되었다. 첫번 것은 1989년 9월에 있었으며, 서울 신림고등학교 1학년생 109명을 대상으로 했고, 두번째 것은 12월에 인천 부평고등학교와 부평여고의 1학년생 315명을 대상으로 했다¹⁾. 2차에 걸친 응답자의 총수는 424명이었다. 응답자의 구성은 표1에 나와 있다. 응답자들에게는 60개 문항으로 된 실험용 검사지를 나누어 주고 각 문항에 대해 찬성의 정도를 7점 척도상(+3: 아주 찬성, -3: 아주 반대)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되도록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사는 학급에서 집단으로 실시했고 지시는 담임 교사가 내렸다. 검사를 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였다. 예비검사가 회수된 후 담임교사에게 능력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overachievers), 능력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는 학생(underachievers), 문제학생(problem students)으로 생각되는 학생들을 수에 제한없이 지적해 줄 것을 부탁해서 명단을 얻어 냈으며 각 학생의 학급내 성적석차 및 지능지수도 알아내었다.

<표 1> 실험용 척도를 받은 응답자의 구성

	남	녀	합 계
신림고등학교 (서울)	52	57	109
부평고등학교 (인천)	157	-	157
부평여고 (인천)	-	158	158
합 계	209	215	424

1) 문항분석을 위한 이 연구에 협조해 주신 서울 신림고등학교, 인천 부평고등학교 및 인천 부평여고의 선생님들과 시간을 내어 응답해 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인천지역의 고등학교들을 소개해 주신 박순영 인천시 교육위원회 장학관계 감사드립니다.

문항분석

실패점근 경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남녀간에 상이한 경향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성별에 따라 척도를 별도로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우선 남녀 별로 문항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후 참고로 남녀 병합시의 문항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문항 선정은 순수하게 실패점근만을 다룬 24개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이들 24개 문항의 총점(TS)의 빈도 분포상에서 상하 25%에 해당하는 응답자군을 가려내어 이 두 집단의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의 비교를 통해 행해 졌다. 총점을 산출함에 있어 각 문항의 -3점--+3점까지의 7점 척도를 편의상 1점--7점의 7점 척도로 변환시켜서 계산하였다. 따라서 24문항의 총점이 취할 수 있는 점수 범위는 24점--168점이 된다. 문항 선정의 기준은 우선 각 문항의 문항-총점간의 biserial correlation 계수가 $r = .50$ 이 넘어야 하며, 이들로 된 예비척도의 신뢰도(문항분석을 위한 이 표집을 대상으로 산출된 신뢰계수이기 때문에 교차확인(cross-validation)되지 않은 것임)가 $\alpha = .80$ 이상으로 증가되도록 문항-총점간 상관이 높은 문항 순으로 추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문항들은 성취동기의 다른 동기 요소들 즉, 성공점근(S+), 성공회피(S-), 및 실패회피(F-)를 다룬 문항들과의 상관이 낮아야만 했다. 선정된 문항들의 경우 이 상관은 모두 낮았다(가장 높은 경우의 $r = .23$ 이었다).

최종 척도의 제작

1) 남자용 척도의 제작

남학생 응답자의 총점(TS)의 빈도 분포상에서 상하 25%에 해당하는 남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문항분석을 하였다. 총점(TS)의 빈도 분포에서 이에 해당하는 점수는 $TS_{.25} = 67$ 점과 $TS_{.75} = 84$ 점이었다. 따라서, $TS \leq 67$ 이거나 $TS \geq 84$ 인 남학생들 109명의 자료를 토대로하여 60문항 각각에 대해 문항-총점(TS)간 biserial correlation계수(부록 1 참고)를 산출했다. 문항-총점(TS)간 상관이 $r = .50$ 이 넘는 문항은 16개(문항 10, 26, 27, 28, 33, 35, 36, 38, 43, 46, 47, 48, 52, 57, 59, 60)였다.

남학생 전체 표집($N = 207$; 응답의 누락으로 2명이 제외됨)에서 산출된 이들 16개 문항들로 된 남자용 예비척도의 신뢰도 계수 $\alpha = .81$ 이었으나 여기에 문항-

총점간 상관계수가 $r = .50$ 에는 미달이지만 높은 순으로 문항 14와 문항42(가장 낮은 계수를 보이는 문항42의 문항-총점간 상관은 .47이었음)를 더 추가시켰을 때의 신뢰도 계수가 $\alpha = .83$ 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남자용 예비척도의 문항들로 이들 18개 문항들을 선정하여 이를 잠정적인 남자용 척도로 삼았다.

2) 여자용척도의 제작

여학생 응답자의 총점(TS)의 빈도 분포상에서 상하 25%에 해당하는 여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문항분석을 하였다. TS 총점의 빈도분포에서 이에 해당하는 점수는 $TS_{.25} = 62$ 점과 $TS_{.75} = 79$ 점이었다. 문항분석을 위해 $TS \leq 62$ 이거나 $TS \geq 79$ 인 여학생 107명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60개 문항 각각에 대해 문항-총점간 상관(부록 1 참고)을 산출했다. 문항-총점(TS)간 상관이 $r = .50$ 이 넘는 문항들은 13개(문항 19, 26, 27, 28, 33, 35, 36, 38, 43, 46, 47, 48, 52)였다.

여학생 전체($N = 215$)를 대상으로 한 이들 13개 문항으로 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76$ 이어서 신뢰도 계수를 .80 이상이 되도록 문항-총점간 상관이 다음으로 높은 문항들을 높은 순으로 10개 문항들을 추가했다. 그 문항들은 문항 59, 13, 16, 14, 20, 57, 21, 44, 39 및 18이었다. 이 중에서 문항-총점간 상관이 가장 낮은 문항 18의 경우 $r = .42$ 였다. 이 확장된 여자용 예비척도의 신뢰도계수는 $\alpha = .81$ 이었다. 따라서, 이들 23개 문항들을 잠정적인 여자용 척도로 삼았다.

3) 남녀 공용 척도의 제작

전체 응답자 424명의 총점(TS)을 기준으로 한 빈도 분포상에서 상하 25%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문항분석을 하였다. 총점(TS)의 빈도 분포에서 이에 해당하는 점수는 $TS_{.25} = 63$ 점과 $TS_{.75} = 81$ 점이었다. 따라서, $TS \leq 63$ 이거나 $TS \geq 81$ 인 응답자들 216명(남자 109; 여자 107)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60문항 각각에 대해 문항-총점(TS)간 상관을 산출했다(부록 1 참조). 문항-총점(TS)간 상관이 $r = .50$ 이 넘는 문항들은 15개(문항 26, 27, 28, 33, 35, 36, 38, 43, 46, 47, 48, 52, 57, 59, 60)로 판명되었다.

1차와 2차 조사를 합친 전체 표집($N = 423$; 응답의 누락으로 1명이 제외됨)을 대상으로 이들 15개 문항으로 된 예비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해 보니 $\alpha = .79$ 이었다. 문항-총점간 상관이 다음으로 높은 문항들을 높은 순으로 3개 문항(문항 19, 20, 및 14)을 선발, 첨가하

여 이렇게 해서 확장된 (18개 문항) 예비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알아본 바 Cronbach $\alpha = .81$ 로 나타났다. 문항-총점간 상관이가 가장 낮은 문항 14의 문항-총점간 상관은 .47이었다. 따라서 남녀를 통합했을 경우는 18개의 문항들로 된 잠정적인 남녀 공용의 척도를 구성했다.

4) 세 척도의 비교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의 문항들과 그 신뢰도 계수(교차확인이 되지 않은 것임)가 표 2에 나와 있다.

<표 2> 남자용, 여자용, 및 남녀공용 척도 각각의 구성문항들과 신뢰도 계수

	남자용 척도	여자용 척도	남녀공용 척도
문항 번호	10	13	
	14	14	14
		16	
		18	
		19	19
		20	20
		21	
	26	26	26
	27	27	27
	28	28	28
	33	33	33
	35	35	35
	36	36	36
	38	38	38
		39	
	42		
	43	43	43
		44	
	46	46	46
	47	47	47
	48	48	48
	52	52	52
	57	57	57
	59	59	59
	60		60
신뢰도계수a (Cronbach α)	.83	.81	.81
문항수	18	23	18

a : 교차확인(cross-validation)이 아닌 신뢰도 계수임.

남녀용 척도들에서 공통되는 문항들은 문항 14, 26, 27, 28, 33, 35, 36, 38, 43, 46, 47, 48, 52, 57, 및 59로서 15개가 공통이다. 따라서, 남자용 척도 문항의 거의 대부분은 문항 10, 42, 및 60을 제외하면 여자용 척도에 포함됨을 보여 준다. 즉, 두 척도를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문항들을 선정해 보았지만 추후의 다른 표집에 두 척도들을 별도로 사용해 보았을 때, 성별에 따른 두 척도의 양호성이 상이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남자용은 단축형이고 여자용은 확장형이라 치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한편 남자용 척도(18 문항)는 남녀공용척도(18 문항)의 문항들과 4개 문항에서 달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척도의 신뢰성

최종 실패접근 척도의 3가지 형(남자용, 여자용, 남녀공용)의 문항분석 표집에서 산출한 Cronbach α 치는 표 2에 나와 있다. 모두 $r = .80$ 을 초과하여 이들 중 남자용 척도가 다른 두 척도보다 높은 신뢰도계수(α)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신뢰도 계수는 문항분석용 표집에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교차확인(cross-validation)이 되지 않은 수치이다. 따라서, 새로운 표집에 대해 신뢰도 계수와 타당도 계수를 구했다.

1) 피험자 및 조사 방법

앞에서 기술한 절차를 통해 제작된 실패접근 척도를 부산시와 경기도 여주읍 및 여주 점동면의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생들(남학생 249명, 여학생 250명, 총 499명)에게 실시했다. 부산시는 1990년 5월에, 여주지역은 1990년 6월에 각기 실시되었다²⁾. 응답자 구성은 표 3과 같다. 이번의 교차확인 조사에서는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를 구분하는 것의 타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남녀 척도들 각각 남녀 학생 집단에 실시하도록 했다(표 4). 만약 남자용 척도가 남자에게 특히 적합하다면, 여자 피험자 표본에서 보다 남자 피험자 표본에

2) 교차확인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를 위한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 부산 남일고등학교와 경남여고의 선생님들께와 여주여자중학교 등학교의 이찬호교장, 여주 점동고등학교의 허수홍교장 그리고 여흥고등학교의 이병룡교장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응답해 준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표 3〉 응답자 표본의 구성

	남	여
부산		
남일고교	106	
경남여고		104
여주		
여흥고교	98	
여주여고		103
여주근교		
점동고교	45	43
합 계	249	250

〈표 4〉 척도별로 본 남녀 응답자의 분포

	남	여	합계
남자용 척도	123	125	248
여자용 척도	126	125	251
합 계	249	250	499

서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여자용 척도에서도 비슷한 예상을 할 수 있다.

남자용 검사지는 표 2에 제시한 것과 같은 실패접근 척도의 18개 문항들 외에 성취동기의 다른 요소들인 성공접근(S+), 성공회피(S-), 및 실패회피(F-) 각각을 다루는 문항 2개씩이 첨가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자용 검사지도 이와 비슷하게, 표 2에 제시된 여자용 척도 23개 문항들에 무관한 문항들 6개 문항이 첨가된 모두 29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었다³⁾. 실시방법은 앞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였다. 다만, 이번에는 남자용과 여자용 검사지를 실시단위인 동일 학급 내에서 무선적으로 배포되게 배려한 점이 다르다. 검사가 끝난 후, 학생들의 학급내 성적순위, 지능지수에 관한 정보를 얻고 담임교사로 하여금 담당 학급에서 과잉성취자(over-achievers), 과소성취자(under-achievers), 및 문제 학생(problem students)을 지적하게 했다. 과잉성취자란 학생 자신이 갖는 능력보다 성적이 잘 나온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말하며, 과소성취자란 그 반대의 학생을 지칭한다. 이때, 인원 수의

3) 남녀 공용척도는 교차확인 조사에 사용되지 않았다.

제한은 없었다. 이 마지막 정보는 실패접근 척도의 기준 타당도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 었다.

2) 결과

새로운 교차 확인 표본에서 산출된 Cronbach α 는 표 5와 같다. 남녀 전체로 보면, 남자용 척도가 $\alpha = .78$ (N=247), 여자용 척도는 $\alpha = .79$ (N=249)로 거의 비슷하다. 남녀용 척도가 구분이 된다면 남자용 척도는 여자표본 보다는 남자표본에서, 그리고 여자용 척도는 남자표본보다는 여자표본에서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표 5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5를 보면 그런 상호작용 효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여자용 척도의 경우는 남자표본에서 보다 여자표본에서 약간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 ($Zr = .398$, $P > .05$).

〈표 5〉 응답자 성별에 따른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피험자 표본		
	남자	여자	남녀전체
남자용척도 (18 문항)	.75 (N=122)	.79 (N=125)	.78 (N=247)
여자용척도 (23 문항)	.77 (N=125)	.79 (N=124)	.79 (N=249)

예상된 척도 X 성간의 상호작용은 없었으나 여자 응답자의 신뢰도는 남자 응답자의 신뢰도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여자 피험자들이 어느 척도에서건 약간 더 양호한 신뢰도를 보인다. 남녀용 척도 중 문항수가 더 많은 여자용 척도가 남자용 척도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 피험자들이 두 척도에서 다 신뢰도가 높음은 아마도 여학생들이 더 꼼꼼하고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남녀용으로 구별된 척도가 응답자의 성에 따른 신뢰도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성별에 따라 척도를 구분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된다. 척도 작성 때, 이미 시사된 바대로 남자용 척도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여자용 척도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특별히 남자용으로, 혹은 여자용으로 상정 될 수 있도록 문항 내용을 구성하지 못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합당한 결론이라고 여겨진다.

위(표 5)에 제시한 신뢰도는 교차확인 신뢰도(cross-validated reliability)로서 이것을 앞에서 문항분석 표본에서 산출했던 비교차확인 신뢰도와 비교할 수 있다. 표 2에 제시된 비교차확인 신뢰도는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가 각각 $\alpha = .83$ 과 $\alpha = .81$ 이었는데, 이와 비교할 교차확인 신뢰도는 남자 표본에 실시한 남자용 척도와 여자 표본에 실시한 여자용 척도에서 각각 $\alpha = .75$ 와 $\alpha = .79$ 로, 교차확인신뢰도가 비교차확인 신뢰도에 비해 각각 .08과 .02만큼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교차확인 신뢰도가 비교차확인 신뢰도보다 낮아지는 것은 예상된 결과이나 하락폭은 이들 척도의 경우 그리크지 않았다.

척도의 타당성

제작된 실패접근 척도의 타당성은 1) 실패접근(F+)과 성취동기의 다른 요소들, 즉 성공접근(S+), 성공회피(S-), 및 실패회피(F-)와의 상관과 실패접근(F+)과 지능 지수 및 성적순위간의 상관관계의 검토를 통한 구인타당성(construct validity)과 2) 과잉 성취자(overachievers), 과소 성취자(underachievers), 및 문제 학생(problem students)으로 분류된 학생들과 이들 범주들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일반" 학생들의 실패접근 점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을 알아 보기로 했다.

1) 실패접근 척도의 구인타당성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검사지에 실패접근 척도의 문항들 외에 성공접근(S+), 성공회피(S-), 그리고 실패회피(F-)를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문항들을 표지문항(marker items)으로 포함시켰으며, 따라서 응답자의 성공접근, 성공회피 및 실패회피 경향 각각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검사가 끝난 후 별도로 학교 측으로부터 지능지수(IQ)와 성적석차(rank)의 정보를 얻어냈다. 실패접근 경향 점수와 이들 요인들간의 상관을 통해 제작된 척도의 구인타당성을 알아 볼 수 있다. 성취동기의 4요소설(차재호, 1988)에 의하면 성취관련 동인은 4가지로서 그림 1과 같이 배치된다. 이 가설을 토대로 4가지 예언이 가능하다. 첫째, 실패접근동인(F+)은 비행집단 등 일탈 집단에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림 1에서 성공접근(S+)은 실패회피(F-)와, 그리고 실패접근(F+)은 성공회피(S-)와

	성공	실패
접근(+)	S+	F+
회피(-)	S-	F-

그림 1. 성취동기의 4요소들

각각 대각을 이루도록 배치된다. 성공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이 두 대각선 중에서 전자(S+와 F-로 된 대각선)축이 특히 부각되는데 이 축은 성공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실패접근(F+)은 이 대각선 상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규범을 벗어난 가치를 대표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동인이 사회의 비행집단과 같은 일탈계층이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날 것을 예상했다. 두번째로, 이 가설에 의하면, 이 4 요소들이 어느 정도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패접근동인은 다른 나머지 세 동인들과 상관이 적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실패접근 동인(F+)은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성적과는 부적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능력을 나타내는 지능지수와는 0의 상관을 보여야 할 것이지만 낮은 지능이 실패 경험을 자주 맛 보게 하고 그 결과 실패접근 동인을 높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패접근은 지능지수와 부적 상관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실패접근 점수는 척도의 각 문항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실패접근을 측정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각 문항들의 반응 값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편의상 -3점--+3점의 척도점수를 1점--7점으로 환적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접근 경향이 높은 것이 된다. 성공접근, 실패회피, 성공회피의 점수들도 각각을 다른 2개 문항들의 반응 값을 합산하여 산출되었다. 남녀용 척도마다, 실패접근 점수와 성공접근, 성공회피, 실패회피, 성적석차(rank), 및 지능지수(I.Q.) 간의 상관행렬(Pearson r's)을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에서 남녀전체 표본, 남자 표본, 및 여자 표본 각각에 대해 산출하였다. 이들은 표 6에 나와있다. 남자용 척도를 받은 남자 표본과 여자 표본, 그리고 여자용 척도를 받은 남자 표본과 여자 표본의 4개 표본은 서로 독립적인 응답자 집단이었다.

(가) 실패접근과 다른 동인들간의 상관. 표 6에서 남녀 병합 표본의 결과인 표 6가와 표 6라를 제외하면, 실패접근(F+) 동인은 나머지 동인의 요소들 중, 성공

<표 6> 실패접근경향(F+)과 기타 변인들 간의 상관

(괄호안의 수치는 성적석차를 고정시켰을 때의 실패접근과 지능지수 간의 부분상관임.)

가. 남자용 F+ 척도: 남녀 전체 표본(N=246)

	S+	S-	F-	rank	I.Q.
F+(남)	.0513	.3553**	.0180	.2119**	-.3624**(-.3068**)
S+		-.1208	-.1591	-.2111**	.1445
S-			.1333	.1259	-.3005**
F-				.0336	-.1045
rank					-.4383**

나. 남자용 F+ 척도: 남자 표본(N=122)

	S+	S-	F-	rank	I.Q.
F+(남)	.0767	.3557**	.0412	.4459**	-.4557**(-.2637*)
S+		-.1314	-.1124	-.2213	.0860
S-			.1633	.2541*	-.3406**
F-				-.0054	-.1647
rank					-.5614**

다. 남자용 F+ 척도: 여자 표본(N=124)

	S+	S-	F-	rank	I.Q.
F+(남)	.0064	.3192**	-.0060	-.0337	-.2621*(-.2856*)
S+		-.1294	-.2112	-.2073	.2167
S-			.1035	-.0147	-.2599*
F-				.0765	-.0238
rank					-.3003**

라. 여자용 F+ 척도: 남녀 전체 표본(N=245)

	S+	S-	F-	rank	I.Q.
F+(여)	-.0767	.4361**	.1670*	.1710*	-.1663*(-.1328)
S+		-.1408	-.1041	-.0349	.1248
S-			.2146**	.0165	-.0836
F-				-.0131	-.0859
rank					-.2270**

마. 여자용 F+ 척도 : 남자 표본(N=125)

	S+	S-	F-	rank	I.Q.
F+(여)	-.0244	.4438**	.1843	.2055	-.2885*(-.2326)
S+		-.1445	-.1054	-.0190	.0961
S-			.2018	.1050	-.0706
F-				-.0240	-.1512
rank					-.3788**

바. 여자용 F+ 척도 : 여자 표본(N=120)

	S+	S-	F-	rank	I.Q.
F+(여)	-.1359	.3913**	.1320	.1462	-.0135(-.0021)
S+		-.1437	-.1057	-.0502	.1553
S-			.2238	-.0803	-.0758
F-				.0026	.0082
rank					-.0782

* p<.01 ** p<.001 양방검증.

접근(S+)과 실패회피(F-) 동인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아 4요소설이 규정하는 대로 서로 독립적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동기의 사전표에서 실패접근 동인과 대각이 되는 성공회피(S-) 동인과는 일관되게 6개의 표 모두에서(표 6)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r=.32-.44$), 실패접근 점수가 높으면 성공회피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상관은 그리 높은 상관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실패접근과 성취동기의 나머지 세 동기 요소들과의 상관을 내어 보았지만 실패접근 이외의 나머지 동인의 측정에는 단지 2문항씩만을 사용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결과의 신뢰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성취동기 측정구인 '동기진단검사'(차재호, 1983)를 본 연구에서 교차확인 표본으로 사용했던 여흥고교(96명)와 여주 여자종합고교(100명)의 학생들에게 본 조사가 있는 후(1990년 8월) 실시해 보았다. 이 동기 진단검사는 남녀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79개 문항들로 구성된 남자용 검사에는 성공 욕구를 다루는 문항이 23개, 실패공포를 다루는 문항이 28개 포함되어 있고, 80개 문항으로 된 여자용 검사에는

성공욕구를 다루는 28개 문항, 실패공포를 다루는 27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이들 문항들은 동기의 4요소설이 제기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들이어서 순수하게 성공접근과 실패접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공접근만을 다루는 문항들과 성공접근과 실패회피를 한 진술문 내에서 대치시킨 문항들이었다). 이 진단검사는 충분한 수의 성공욕구의 문항들과 실패공포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뢰로운 실패접근 동인과 성공욕구(성공접근) 및 실패공포(실패회피)동인과의 상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각 피험자들 마다의 실패접근 점수와 이 검사 결과 산출된 성공 욕구(approach to success; AS) 및 실패공포(avoidance of failure; AF)간의 상관은 다음과 같았다(표 7 참조).

표 7은 실패접근 동인이 성공욕구나 실패공포와 거의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고 따라서 이들 동인들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임을 뒷받침해 준다. 또, 이 결과는 성공욕구(S+에 해당)와 실패공포(F-에 해당)가 높은 부적 상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기진단검사 구성에는 성공회피(S-)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앞(표 6)에서 본 실패접근(F+)과 성공회피(S-)간의 정적상관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표 7〉 실패접근점수와 동기진단검사의 성공욕구 및 실패공포 점수 간의 상관

(N=94)	남 자 용 척 도		(N=99)	여 자 용 척 도	
	AS	AF		AS	AF
F+	.0721	-.1158	F+	-.0365	.1867
AS		-.6461**	AS		-.6925**

** p<.001 양방검증.

(나) 실패접근과 성적 및 지능간의 상관. 실패접근(F+) 점수는 남자표집에서 학급 성적석차(rank)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남자척도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했으나 여자척도에서는 5% 수준에서 유의했다. 즉, 실패접근 점수가 높을 수록 성적순위가 낮아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상관관계는 남학생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실패접근 점수와 지능지수간에는 r=0 또는 부적상관을 기대했었는데 여자용 척도-여자표본의 경우만 0에 가까운 상관을 보였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일관되게 유의있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같은 여자 표본이라도 남자용 척도의 경우는 실패접근 점수와 지능지수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왔다는 사실은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가 서로 약간 다른 것을 짚는 것을 시사한다. 지능지수와 성적이 거의 모든 경우들(5개 표)에서 유의있게 상관을 이루고 있고, 또한 성적 변인은 실패접근과도 대체로 유의있게 상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적 변인을 고정시켰을 경우의 실패접근과 지능지수 간의 부분 상관도 산출해 보았다. 성적순위변인의 기여분을 제외시킨 실패접근과 지능지수간의 부분상관을 보면 여자용척도에서는 0 또는 유의없거나 낮은(p<.05 남자 표본의 경우)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남자용 척도에서는 남녀 표본 모두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지능지수가 낮을 수록 실패접근 경향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앞서 말한 바,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의 성질의 차이에 대한 추측을 지지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실패접근경향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을 남녀 피험자군 간에 비교해 볼 때(표 6나 대 표 6다, 표 6마 대 표 6바) 두드러진 것은 실패접근경향(F+)은 남자의 경우는 학급 성적순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표 6마의 F+와 rank간의 상관은 p<.05로 유의한 것임), 여자에서는 그런 상관이 나오

지 않는 점이다. 특히 남자용 척도의 경우 실패접근경향과 성적순위간의 상관은 남자피험자의 것이 여자피험자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Zr=3.97, p<.01).

(다) 남녀용 척도의 비교. 남자 표본에 남자용과 여자용 척도를 각각 사용했을 경우의 상관 행렬(표 6나 대 표 6마)을 비교해 볼 때, 실패접근 동인파단 관련된 요인들과의 상관만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상관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녀 척도 모두가 실패접근(F+)과 성공회피(S-)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남자 표본에서는 실패접근과 성적 석차간의 유의한 정적상관도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에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실패접근과 지능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 간에 차이점이 보인다. 남자용 척도의 경우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특히 성적석차를 통제한 부분상관에서 보이지만(표 6나와 표 6다 참조) 여자용 척도에서는 이 부분상관이 모두 유의하지 않다(표 6마와 표 6바 참조).

(라) 기타 결과. 실패접근 척도와는 무관하나 주목할 만한 한 가지 결과가 표 6에 나와 있다. 그것은 성적에 관한 것으로 남자에서는 실패접근(F+)이 성적석차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자에서는 그런 상관이 안보인다. 이 결과는 실패접근과 같은 동인이 여학생에서 보다는 남학생에게서 성적과 직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실패접근 척도의 규준 타당도

과잉성취자(over-achievers), 과소성취자(under-achievers), 및 문제학생(problem students)의 실패접근 점수가 이들 범주로 구분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에 비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런 피험자들의 범주 분류는 탐입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했다. 실패접근 점수는 척도의 각 문항 값들을 합산한 것으로 -3점--+점의 척도를 1점--7점 척도로 환적해서

〈표 8〉 피험자 범주별 실패점근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 속)

척도 표본 응답자범주	남 자 용 척 도		여 자 용 척 도	
	문항분석용	교차확인용	문항분석용	교차확인용
과잉성취자	42.93(13.2) (N=28)	47.21(11.7) (N=14)	58.82(15.2) (N=28)	72.27(14.4) (N=11)
과소성취자	47.26(16.4) (N=35)	42.50(14.2) (N=14)	64.09(17.7) (N=35)	72.41(17.9) (N=17)
문제학생	50.06(18.8) (N=16)	51.00(16.1) (N=3)	65.94(21.2) (N=16)	73.50(21.2) (N=14)
비분류학생	45.53(12.5) (N=344)	47.07(14.0) (N=216)	62.11(15.9) (N=344)	60.45(15.4) (N=209)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남자용 척도의 경우는 18문항이므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18점에서 126점까지가 되며, 23문항으로 된 여자용 척도의 경우는 23점에서 161점이 된다. 점수가 클수록 실패점근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8에 문항 분석에 사용됐던 표본과 신뢰도와 타당도의 교차확인 분석에서 사용됐던 표본 각각에서 응답자 범주별로 산출한 남자용 척도 점수와 여자용 척도 점수가 나와 있다.

피험자 범주 변인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여자용 척도를 실시한 교차 확인용 표본에서 뿐이다 ($F_{(df:3,243)}=7.60, p<.0001$). 그 차이의 내용을 보면, 정상(비 분류) 학생들의 점수가 나머지 범주의 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이다. 또 하나 드러나는 사실은 4개의 표본 모두에서 문제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실패점근 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그밖에 4개 표본 중 3개에서 과소성취자의 실패점근 점수가 거의 문제학생의 그것과 같은 정도로 높았다. 이런 결과는 표 6에서 본 실패점근 점수와 성적석차 간의 상관관계(실패점근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낮다)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결과는 과소성취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데서 나올 가능성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결과는 실패점근이 낮은 성취수준이나 반규범적 행동 경향과 연결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각 범주에 분류된 피험자 수가 주관적일 뿐 아니라 너무 적어서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학교의 원호택(발표예정)이 비행청소년집단과 일반 고교생 집단을 비교한 연구 결과는 본 실패점근 척도의 규준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원호택의 연구는 본 연구의 문항분석 과정에서 선정된 18개 문항들로 된 척도를 사용하여 실패 점근 경향을 비교했는데 그 문항들 중 15개 문항은 남자용 척도와 동일하였다. 그 결과, 비행청소년 집단의 평균 실패점근 점수는 41.49($SD=15.41, N=140$)인 반면 일반 고교생 집단의 평균 실패점근 점수는 30.45($SD=17.00, N=100$)로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t(238)=5.24, p<.0001$). 이로서 실패점근 경향이 반규범적 행동이나 비행과 연관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른 심리검사들도 실시하였는데 실패 점근 점수와 유의 상관은 표 9와 같다.

이들 검사들과의 상관은 실패점근경향의 속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실패점근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억압-민감화척도(Byrne 등, 1964)는 자신에게 위협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을 지각하지 않으려하여 부정확하게 위협적인 자료를 지각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그런 것에 대해 예민하고 정확하게 지각하는 사람들을 구별해 준다. 억압자에 비해 민감자는 성적, 공격적 및 정서적인 충동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신경진, 1985), 실패점근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이런 성적, 공격적 충동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을 보임을 결과는 시사한다. 또한, 실패점근 점수가 높은 사람은 충동조절이 잘 안되며 이태올로기 면에서의 강경성(toughmindedness)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강경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며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충동적,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위협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아이젠크와 이현수, 1985). 표 9의 결과는 실패점근 경향이 높은 사

〈표 9〉 실패접근 점수와 다른 심리검사점수들간의 상관

	비행집단 (N=140)	일반집단 (N=100)
locus of control (LC)	.07	.13
repress-sensitize scale(RSS)	.25*	.19
impulse control scale(ICS)	-.27**	-.19
Eysenck's toughmindedness scale (ETS)	.25**	.24*
Eysenck's externality scale (EES)	.00	-.04
Eysenck's neuroticism scale (ENS)	.07	.19
Eysenck's lie scale(ELS)	-.09	-.07

* p<.01 ** p<.001

a :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통제가 강하며(LS) 민감화의 방어 유형을 많이 사용하며(RSS), 충동조절을 잘하며 (ISS), 강경하고 공격적인 이데올로기를 지니며(ETS), 외향적이며(EES), 정서적으로 예민하며(ENS), 자신의 감정노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큼(ELS)을 나타낸다.

람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접근 경향이 특히 문제학생 층에서 높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3) 실패접근 경향에서의 성차

실패접근 점수에서의 성차는 문항분석용 표본에서나 교차확인용 표본에서나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남자피험자는 여자피험자보

다도 실패접근 경향이 더 크다. 이런 차이는 실제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패에 접근하는 경향(따라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이 더 큼을 반영한 것일수도 있고 아니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문항의 사회 선회도에 따라 반응하려는 경향(실패접근동인에 해당되는 행동들이란 사회적 규범으로 볼 때 반사회적인 행동들이라 할 수 있다)이 낮거나, 더 솔직한 응답을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본 자료만으로는 이런 실패접근 경향에서의 남녀 간의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알 수 없다.

3) 기타 결과.

표 6의 상관행렬들을 남자용과 여자용 척도간에 비교해 볼 때(표 6가, 나, 다 대 표 6라, 마, 바), 대별되는 결과는 남자용 척도에서만 성공회피(S-)와 지능지수(IQ) 간의 관계가 남녀 전체 표본, 남자표본, 및 여자 표본에서 일관되게 의의있는 부적상관인 것으로 나타나 성공회피 경향이 높은 사람이 지능지수가 낮은 것으로 시사된다. 말하자면, 남자용 척도 상에서는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은 실패접근도 높지만 성공회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용 척도에서는 이런 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두 척도에서 사용된 성공회피(S-)의 문항들이 동일했음에도 이러한 차가 나는 것은 두 척도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공회피 문항을 두 문항만을 썼기 때문에 성공회피와 지능지수, 이 두 요인간의 관계를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부기할 것은 여자용 척도-여자 표본에서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성적순위와 지능지수 간의 상관이나 오지 않은 점은 특별히 이 표본이 갖은 특색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되어 무선표집의 오류에 기인된 것으로 여

〈표 10〉 남녀간의 실패접근 점수의 평균 비교

	남 자 용 척 도		여 자 용 척 도	
	문항분석용	교차확인용	문항분석용	교차확인용
남 자	48.19(14.2) ^a (N=208)	49.34(14.0) (N=122)	65.67(16.5) (N=208)	65.38(16.6) (N=126)
여 자	43.23(11.6) (N=215)	44.46(13.3) (N=125)	58.85(15.2) (N=215)	59.61(15.8) (N=125)
t	3.94(p=.000)	2.81(p=.005)	4.41(p=.000)	2.82(p=.005) ^b

^a: ()안은 표준편차임. ^b: 양방검증.

겨진다.

논의

실패접근 동인을 재고자 제작된 본 검사는 그 신뢰성과 타당성으로 볼 때 대체로 성공적인 편이라 할 수 있다. 신뢰성에 있어서는 남자용과 여자용 척도의 교차확인 Cronbach α 가 $\alpha=.78$ 내지 $\alpha=.79$ 를 보였으며, 구인타당도의 면에서는 실패접근이 성공접근, 실패회피의 동인들과 대체로 낮은 상관관을 보이며, 성적과는 높은 부적상관을, 지능지수와는 0 또는 부적상관을 보여서 대체로 예상된 대로 결과 나타났다. 또한, 문제 학생의 경우와 과소성취자로 지목되는 학생들의 실패접근 점수가 일반학생들보다 대개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기준타당성 면에서의 타당성을 보여 준다. 여기서는 몇가지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남녀용 척도를 달리 구성하려는 생각에서 문항 분석 과정에서부터 남녀별로 구분하여 문항들을 선정하였으나 본 연구로서는 선정된 남녀용 척도들은 각가 남자 응답자와 여자 응답자에게서 같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 남녀 응답자에 구별없이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나 구인타당성 면에서는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가 약간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자용 척도는 남자 표본이나 여자 표본 모두에서 지능지수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여자용 척도는 그런 상관이 극히 약하거나(남자응답자) 없는 것(여자응답자)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용 척도는 남자 표본에서 성적석차와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는 반면, 여자용 척도는 여자 표본에서 그런 상관이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여자용 척도는 남자용 척도에 비해 성공회피(S-) 점수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는 약간 다른 것을 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자용 척도와 여자용 척도가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것은 문항작성 시에 남, 녀별로 구별될 수 있는 성취 상황들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성취 상황들을 다양하게 생각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패접근이란 행동 자체가 흔하게 일어나거나 생각되지 않는 경우라서 실패접근을 다루는 문항들은 구성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앞으로 남녀별로 상이한 실패접근 상황들이 밝혀지면 보다 뚜렷하게 남녀별로 구별되는 실패접근 척도를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거론되어야 할 문제는, 성취동기의 사간표에서 대각을 이루는 동인 요소들 간의 관계이다. 실패접근 동인은 성공접근이나 실패회피와는 어느 정도 독립적이지만 대각을 이루는 성공회피와는 4개의 독립적 표본에서 일관되게 의의있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실패접근 경향이 클수록 성공회피 경향도 크게 나타난다. 과연, 동기의 사간표 중 대각을 이루는 동기요소들 끼리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관관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와 만약 상관이 있다면, 그 상관의 방향의 문제는 경험적인 문제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다. 성취동기의 네 요소 동인들이 서로 독립적일 것을 가정하여 실패접근과 나머지 동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했는데 성공접근과 실패회피, 및 성공회피의 동인들을 다루는 문항들은 2개 문항밖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 논문에 보고된 결과는 결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답은 실패회피와 성공회피 동인을 다루는 각기의 검사들의 제작이 선행되어야 드러날 것이다. 아직도 실패회피나 성공회피 동인만을 순수하게 다룬 검사가 제작된 바 없다. 성취동기의 네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이냐의 여부는 이들 동인의 측정수가 완성되어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패접근 행동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실패접근 행동을 추구하는 것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는 식의 2차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지 실패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그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기대 부담이 없다면가 하는 실패 자체가 갖는 이점도 있다. 또한, 우리는 실패의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흔히 자포자기적으로, 또는 자기 학대적으로,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 방향인 반사회적으로 행동한다. 차재호(1988, p.268)는 “성취동기의 4간표에서 성공회피와 실패 공포를 잇는 사변은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the dominant cultural values)를 반영하는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사변 즉, 실패회피와 성공공포로 대표되는 축은 반문화적인 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어느 것이

주류(지배적) 문화가치가 되느냐는 시대에 따라 또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 하여 실패접근 동인이 반 문화적인 행동들로 연결될 수 있음을 언급했었다. 이런 반문화적 또는 비주류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들을 진단할 수 있다면 그 진단 가치만으로도 실패접근 동인의 검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실패접근 경향이 신뢰롭게 측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해하기 힘든 차원이 측정 가능한 차원임을 증명한다. 본 연구는 이 측정치가 공격성이나 충동통제의 결여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므로써 실패접근 경향이란 동인의 성격의 윤곽을 파악하는데 초보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동인의 상관 변인(correlates)의 탐구는 정상인 집단과 문제학생집단, 비행소년 집단, 또는 범죄집단과의 집단간 비교 연구를 통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시빌 아이젠크,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신경진(1985). 검사목적에 대한 인식 및 억압-민감화 성격변인과 Rorschach 검사 반응의 관계(미발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차재호(1983). 동기진단검사. 서울: 전인교육발전연구소.
 차재호(1988). 人間動因의 四要素에 관하여. 심리학의 연구문제(서울대학교 심리학과), 3, 247-280.
 Atkinson, J.W.(1957).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risk-taking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4, 359-372.
 Byrne(1964). Repression-sensitization as a dimension of personality. In B.A. Maher(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1). N.Y.: Academic Press.
 Horner, M.S.(1968). Sex differences in achievement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situ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McClelland, D.C., Atkinson, J.W., Clark, R. A., and Lowell, E.L.(1953).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부 록

<표 1> 남녀 통합 경우의 문항-총점(FPLUS)간 상관

문항	r	문항	r	문항	r
1	.1141	21	.4261**	41	.3794**
2	-.0117	22	-.2688**	42	.3980**
3	-.1695	23	.2835**	43	.6258**
4	.4294**	24	-.0096	44	.4154**
5	.2733**	25	.3135**	45	.3725**
6	.3551**	26	.5573**	46	.5447**
7	.2476**	27	.6125**	47	.6000**
8	.2645**	28	.6086**	48	.5716**
9	.4604**	29	.3873**	49	.4002**
10	.4107**	30	.1623	50	-.2605**
11	.2512**	31	-.0679	51	.2776**
12	.1459	32	.3892**	52	.5473**
13	.4320**	33	.5322**	53	.2815**
14	.4717**	34	.1070	54	-.3250**
15	.0926	35	.6091**	55	.4024**
16	.3855**	36	.6356**	56	.3525**
17	-.2406**	37	.3806**	57	.5286**
18	.3282**	38	.5365**	58	.4126**
19	.4951**	39	.4291**	59	.5127**
20	.4845**	40	.3023**	60	.5254**

(** p<.001, 양방검증)

<표 2> 남자인 경우의 문항-총점(FPLUS)간 상관

문항	r	문항	r	문항	r
1	.0091	21	.3575**	41	.4162**
2	.1390	22	-.2915*	42	.4706**
3	-.2704*	23	.3756**	43	.6363**
4	.4499**	24	.0514	44	.3237**
5	.3080*	25	.2664*	45	.3710**
6	.3129**	26	.6012**	46	.5281**
7	.3738**	27	.6674**	47	.6087**
8	.3326**	28	.6484**	48	.5729**
9	.4660**	29	.4339**	49	.4647**
10	.5647**	30	.2052	50	-.2205
11	.3396**	31	-.0332	51	.4162**
12	.1602	32	.4151**	52	.5053**
13	.4050**	33	.5469**	53	.2754*
14	.4928**	34	.0912	54	-.3260**
15	.1436	35	.6096**	55	.4239**
16	.3011*	36	.6548**	56	.3368**
17	-.1169	37	.4226**	57	.5489**
18	.2262	38	.5247**	58	.4279**
19	.4442**	39	.3896**	59	.5410**
20	.4596**	40	.2455	60	.5899**

(* p<.01 ; ** p<.001, 양방검증)

〈표 3〉 여자인 경우의 문항-총점(FPLUS)간 상관

문항	r	문항	r	문항	r
1	.3010*	21	.4348**	41	.3376**
2	-.2007	22	-.2625*	42	.3272**
3	.0114	23	.1957	43	.5695**
4	.3892**	24	-.0849	44	.4290**
5	.3098*	25	.2979*	45	.3678**
6	.3496**	26	.5874**	46	.5616**
7	.1718	27	.5309**	47	.5372**
8	.1725	28	.5809**	48	.5610**
9	.3592**	29	.3007*	49	.3001*
10	.2312	30	.1206	50	-.2738*
11	.1333	31	-.1490	51	.0363
12	.1157	32	.3227**	52	.6017**
13	.4841**	33	.5144**	53	.2636*
14	.4621**	34	.1656	54	-.3391**
15	.0289	35	.6003**	55	.3313**
16	.4642**	36	.5910**	56	.3114*
17	-.3950**	37	.2626*	57	.4456**
18	.4238**	38	.5419**	58	.3389**
19	.5559**	39	.4260**	59	.4856**
20	.4473**	40	.3015*	60	.3955**

(* p<.01, ** p<.001, 양방검증)

The Development of an Approach-to-Failure Scale

Jae-Ho Cha and Mi-Young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Cha (1983)'s four-component theory of motive, two scales (male and female scales) were developed, which were intended to measure a person's tendency to approach failure (TAF). The new scales' cross-validated reliability coefficients (Cronbach α) ranged from .78 to .79. The scale scores appeared to be independent of the scores for approach-to-success and avoidance-of-failure, respectively. The independence of the TAF scales from the remaining 3 components of achievement motive, however, seemed not complete, since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tained between the TAF scales and avoidance-of-success scores. As expected, the TAF scor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academic records and the I.Q.s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validity of the TAF scales was partially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problem-students, under-achievers and juvenile delinquents tended to score high on the scales compared to normal high school students.